

전남대·조선대 의대 정원 줄어드나

올해보다 63명 줄어든 250명 예상…‘증원 전’으로 복귀

정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로 2026학년도 3058명 확정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확정하면서 광주 지역 의대의 2026학년도 모집 인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025학년도 모집 인원을 증원했던 전남대·조선대 의대가 내년에는 전보다 줄어든 안을 내놓을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달 30일까지 전국 의대로부터 의대 모집 정원 조정안을 담은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조정된 의대 모집 정원을 확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2026학년도에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이 백지화된 만큼, 증원이 이뤄지지 않았던 2024학년도 모집 인원

에 준하는 수준으로 정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전남대·조선대 의대 또한 모집 정원을 각각 ‘125명’으로 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이 때 전남대 의대는 163명에서 125명으로 38명(23.3% 감소) 줄어들며, 조선대 의대는 150명에서 125명으로 25명(16.6%) 줄어든다. 결국 광주 지역 총 의대 정원은 전년도 313명보다 20.1%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의대의 감소율은 이보다 더 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경인권 550명→209명(62.0% 감소), 충청권 810명→421명(48.0%), 제주권 70명→40명(42.9%), 대구·경북권 575명→351명(39.0%), 부산·울산·경남권 711명→459명(35.4%), 강원권

391명→267명(31.7%) 등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서울 지역 의대는 2025학년도에 증원이 없었던 만큼 총 모집인원 826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남권의 고등학교 학생 수 대비 의대 모집 정원의 비율은 2025학년도 1.5%에서 2026학년도 1.0%로 감소(0.5%포인트)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2년 연속으로 수능을 반 년 남기고 의대 모집 인원이 변동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의대 증원 백지화 이후로도 의대생 ‘수업 거부’ 등이 이어지고 있는 등 의·정 갈등이 종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2027학년도 이후로도 의대 정원 증원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대교협은 각 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과 관련, 오는 5월 말까지 대입전형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할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화순 봄꽃 만발
휴일인 20일 화순 꽃강길 일원에서 열린 2025 화순봄꽃 축제장을 찾은 행락객들이 유채꽃 등의 봄꽃들이 자리한 강변길을 거닐며 휴일날의 여유를 즐기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전남도 ‘이산가족’ 고향 방문 참가자 모집

28일까지 25명 내외…7월께 중국 대련 등 문화탐방

전남도는 ‘이산가족의 날’을 기념해 전남지역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고향방문 행사’ 참가자를 오는 28일까지 25명 내외로 모집한다. 이번 행사는 북측 접경지역을 방문해 실향의 아픔을 나누고 정서적 위로를 전하기 위한 교류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는 오는 7월께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 대

련·단둥 등지에서 문화탐방과 이산가족 간담회 등에 참여하게 된다. 공고일 현재 최근 6개월 이상 전남에 거주한 자로 ▲이산가족 1~2세대 및 그 가족(이산가족 관리번호 제출) ▲실향민 및 이북도민 1~2세대와 그 가족(기본증명서에 본적지 기재)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북한이탈주민 확인증 제출)이면 신청 가

능하다. 세대당 1명 신청이 원칙이나 만 70세 이상 고령자가 포함된 세대는 세대당 2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전남도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제출하면 된다. 선정자는 5월 23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행사는 전남도 남북교류협력기금 5400만원을 활용한다. 참가자에게는 항공료, 체류비 등 주중 경비가 지원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실질적 공감과 정서적 치유가 있는 민간 중심의 교류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학생들도 외면하는 ‘AI교과서’

광주·전남 포털 가입 절반 그쳐

광주·전남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중 인공지능(AI) 교과서를 활용 중인 학교에서 AI 교과서를 이용하기 위한 필수조건인 ‘포털 회원가입’ 비율이 전체 이용자 수의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광주·전남의 AI교과서를 채택한 학교의 비율이 10%대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된 데 이어 그나마 AI교과서를 이용 중인 학교에서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정을호(비례)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 학교의 AIDT(AI교과서 포털) 이용을 위한 디지털원패스 가입률은 60.1%(전국 7위)에 그쳤다. 가입 대상자 6106명 중 3673명만이 가입한 상황이었다. 전남은 전체 8866명 가입 대상자 중 4204명만이 가입해 가입률 47.4%를 기록, 전국 17개 시·

도 중 14위에 머물렀다. AI교과서를 이용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구독료는 매월 광주 6332만원, 전남 9838만원으로 추정되며, AI교과서 포털 가입률이 떨어지는 만큼 구독료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정 의원은 분석했다. 광주 일선 학교의 AI교과서 도입률은 총 대상 학교 313개교 중 41개교로 13.1% 수준이다. 전남의 경우 829개교 중 91개교만 채택해 채택률이 11.1%에 불과하다. 정 의원은 “교육당국은 저조한 가입률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특정 상황에서 교사가 나서서 이메일 인증 없이 학생을 회원가입시키는 ‘대리 가입’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며 “저조한 AIDT 가입률은 학부모들이 끝까지 AIDT 도입을 거부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이며, 정부는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지 말고 2026학년도 전면 도입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교육의 책임 외면하는 국가

‘고교 무상교육’ 정부 부담 중단…시·도교육청 연 9300억 부담

고교 무상교육 비용의 절반가량을 중앙정부가 계속 부담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결국 폐기되면서 전국 시·도교육청이 추가로 내야 할 부담액이 연간 93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됐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분담 변경에 따른 지방재정소요 추계’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육청은 향후 5년간 연평균 9316억원의 고교 무상교육 경비

를 추가로 내야 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6년 9248억원, 2027년 9302억원, 2028년 9582억원, 2029년 9349억원, 2030년 9100억원이다. 교육청이 5년간 더 내야 하는 교육재정 소요액은 총 4조 6580억원이다. 기존에 부담하던 것까지 모두 더하면 5년간 총 재정소요액은 9조 8064억원으로 추산됐다. 연평균 1조 9613억원 규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교육부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고교생 1인당 평균 학비를 160만원으로 보고 고교 무상교육 사업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무상교육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에 따라 중앙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5%를 부담해 왔으나 이 특례는 작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몰 당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례를 3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정부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다 따져봤지만, 교육청 재정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내일부터 최고 60mm 봄비

광주·전남에 맑고 화창한 봄날씨가 이어지다 22일부터 봄비가 내리겠다. 20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1일 광주·전남은 고기압 영향권에 들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 오후에 가끔 구름이 낄 전망이다. 21일 광주·전남의 기온은 평년(최저 7~11도, 최고 18~22도)보다 높은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0~15도에 머무르다가, 낮 최고기온은 19~26도까지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22일 새벽부터는 차차 흐려져 늦은 오후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 20~6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등은 80mm 이상이 내릴 전망이다. 또 전남해안과 전남동부내륙을 중심으로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부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으니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감속 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신뢰할 수 있는 신문

광주일보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보도
광주일보가 선도합니다.

중앙만 바라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지역발전은 지방신문이 선도합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광주일보

매일신문

대전일보

강원일보

부산일보

경남신문

전북일보

경인일보

제주일보